

2015년 5월 4일 월요일 새벽말씀(편집본)

또 금주의 “혼인잔치” 말씀을 또 연속해서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시대를 말씀합니다.

항상 사람이 좋은 경사 때는 초청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초청했어도 오지 못하면 그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을 꼭 부릅니다.

선생님도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그렇지요?

“인간의 최대 삶의 도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선생이 이제까지 경험한 결론으로서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높은 사람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까?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나는 그랬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 못 되었을 때는 높은 사람을 빨리 찾아서 모시고 사는 것도 나에게 큰 영광과 영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못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도전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도전했습니다.

그 도전을 해서 하나님께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일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직 밥만 먹고, 그 일만 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그것만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고, 주님만 찾고,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그랬더니만 “세상을 구원하라. 가서 나와 같이 그렇게 하자.”하셨습니다.

“딱 한 사람이면 족하다.”

구세주는 둘이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조건을 세운 것이.

선생님이 조건을 세웠지, 본인들은 조건을 못 세웁니다. 본인이 조건을 세운다고 하지만, 그런 조건은 못 세웁니다. 개인 조건은 세우지요. 그러나 온 인류를 위해 조건을 세우는 일은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일체된 자가 되고, 심정의 애인이 되고, 섭리의 애인 되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선생님께서 제일 가까이 하나님을 사귀었다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만들기까지는 지금까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누구는 나무를 30년, 40년 기릅니다. 그래서 정원도 만듭니다. 선생님은 그런 세계적인 지혜를 받고, 지식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월명동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물론 고생도 되고 힘도 들었지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보고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면 만물이

전초합니다. 만물이 전초하고, 제자들이 전초합니다.

사람은 분위기인데, 분위기 보고 오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전초하고, 또 선생님이 나타나서 “너희도 늘 같이 쓰자.”하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무엇을 만들어 놓고 같이 쓰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같이 쓰자.” 합니다.

만들어 놓고, 내가 집을 멋있게 지어놓고 “너희들, 나와 같이 이것 쓸래? 별장같이 써라. 내가 너희들이 주인 되게 100% 해 줄게.” 그렇게 하면 끝났잖아요. 그러는데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손을 대면 그 사람에게 큰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써먹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으로 꼭 지옥 갈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놔두면 꼭 지옥 갑니다. 그러나 내가 손대면 지옥을 면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 있는가 하니 “내가 천국가게 못 만들면 내가 지옥 간다.”할 정도로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무엇 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백(back)!

자, 또 말씀하겠습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 이야기만 해야 혼인잔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다 해당됩니다.

“시간이 금이다.”

선생님은 시간이 금입니다. 내가 실제 실기에 들어가면 한 시간에 엄청난 그런 일을 합니다.

내가 한 시간을 갖고 딱 시작하면, 전도를 시작해도 한 시간 동안 하면 많이 합니다.

“연결시켜라. 내가 지금부터 대화를 할 테니까.”

그래놓고 내 이야기를 하면 금방 “와!” 합니다. 끝나고서 어떠냐고 하면 “이 애는 교회 처음 왔는데요, 내가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 듣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너무 좋아서 팔딱팔딱 뛰면서 평생 동안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않고 평생 동안 섬리를 뛰며 목사도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썩둥거렸는데 그렇습니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만큼 위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위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큰소리칩니다. 대통령은 끝나고서도 죽을 때까지 큰소리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이 큼니다. 주권, 사역, 권세, 능력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월명동 살 때에 우리 어머니가 “반장만 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월명동에서도 반장 하나 나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월명동에서 반장 못 나오고 끝났습니다. 현재까지 반장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 마을에 대해서 자꾸 배우십시오. 우리 월명동에서 반장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반장은 항상 중말거리에서 나오고, 월명동에서는 반장이 없었습니다.

배운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반장할 사람이 전부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명동은 아직 까지 반장도 안 나온 마을입니다. 이 세상 주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에서 제일 작은 것이 반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것은 이장입니다. 동네 이장입니다. 도시에서 표현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도시에서는 반장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말로는 반장이라고 합니다.

반장은 6집에서 7집, 10집 안팎을 관리하는 사람을 반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장은 적어도 100집, 70집을 관리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한번은 어머니가 말하기를 “저 밑의 종철 집사가 나를 보고 자꾸 ‘명석이 집사가 다음에 내 대신 하면 좋겠다. 반장을 하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내가 오늘 숨이 가빠서, 실은 감격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내년도부터 해 보라고 한다. 우연찮게 하는 이야기지만 네가 해 보려느냐?” 하셨습니다.

“아이고, 나는 한문을 모르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실망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못하느냐? 물어보면서 하면 되잖아.”

반장을 하면 반에서 수고했다고 곡식도 조금 주고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말인가 두말씩 주고 그랬습니다. 가을에 한 말 주고, 여름에 한 말 줍니다. 우리는 쌀이 없어서 콩을 한 말 주었습니다. 여름철에는 보리를 두 말 주고 그랬습니다. 반장 한다고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역시 뭐할 때 보면 사람들이 반장들 집으로 타러 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 보려고 겨울철에 한문 공부를 했습니다. 머리 아픈 한문 공부를 겨울 동안 했습니다. 1300자를 갖다놓고 겨울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1300자를 다는 못 배우고 800자를 안 보고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반장을 못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편지가 오면, 공문서가 오면 꼭 한문으로 왔습니다. 한문으로 오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박재수, 그 밑의 장도표 등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이름들이 전부 한문으로 오기 때문에 한문을 못 보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워서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격이 없어서 반장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온 지구촌의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나에게 하늘 주권을 주세요. 하늘나라 주권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쫓고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삼고, 지구상에 뽑는데 2000년 만에 뽑는데 이 시대에 나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담도 되고, 얼마나 감격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책임이 크고, 얼마나 밤잠이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뽑은 것을 감격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큰일을 할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와 같이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 때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하늘 앞에 오게 했으니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목사의 새벽 말씀을 몇 마디 해 주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녹화만 해놓았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는 대로, 만나는 대로 모두 오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본래 초청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안 오니까 놔두어 버리고, 할 수 없이 그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을 하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누구에게 시켰는데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시킵니다. 나를 시켰는데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세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20년 동안 기도 생활하면서 조건을 세웠습니다.

나는 ‘아, 나도 단상에서 한번 외쳐보면 좋겠다. 아, 사람들이 나를 너무 무시하니까.’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도했는데 그 원한을 풀어주셨습니다. 실컷 외치게 했습니다. 실컷 말씀하게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가 원하면 실컷 주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문제에 의해 좌우됩니다. 실컷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외쳐라. 피곤하면 쉬고. 하고 싶은 대로 외쳐라. 외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나를 이야기해 주고 가르쳐 주니.”

하나님께 도전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데 도전해야 된다. 어느 선까지 왔느냐?”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 나를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가까이 있도록 한번 도전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도전해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세상의 어떤 것을 좇은 것보다 기쁘고 즐겁고, 벅슬이 되고 클 것입니다.

세상의 육적인 벅슬이야 그까짓 것 하다가 끝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5년, 독재주의는 조금 오래 갑니다. 그것도 요즘은 선거하기에 힘듭니다. 다른 나라도 전부 돌려가면서 합니다. 세상에 독재주의라고 할 나라들이 이제 몇 나라 없습니다. 북한 하나를 치고, 나머지는 독재주의라 소리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북한은 독재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나머지 나라들은 그렇게 독재주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남미 같은 나라는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돌려가면서 합니다.

세상의 왕들도 5년, 한 번 더 하면 10년인데 10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선생님은 안 바뀔니다.

그러니 너무 너무 좋잖아요. 그것을 작은 일로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가 늘 어머니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에 경사가 났는데, 옛날에는 반장만 되어도 좋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지구상에 큰 사람이 났는데 안 기뻐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맨날 좋아하면서 지내십시오. 아니, 형제들이 뭐하는 거야? 자기 집에 큰 인물 나고, 지구상에 영웅이 났으니 잔치도 해야지.”

그렇지요?

우리가 혼인잔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결혼하기 전에 신랑 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신부 택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진짜 결혼할 때 가장 심각한 것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나에게 잘 해 줄 것인가? 평생 잘해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제일 고민합니다.

‘인격은 어떤 사람이고,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돈은 얼마나 있는가? 현재 돈은 없어도 앞으로 얼마만큼 자수성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고르는 것이 가장 심각합니다. 나도 물건 사러갔을 때 고르는 것을 보면 애들이 학을 뺏니다. 헛바닥을 내뿜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혼골수를 알기 때 문입니다. 물건이 좋고 나쁜 것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물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것 얼마짜리예요?”하면 거의 장사들이 만든 수준에서 최소의 이익만 붙여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안 팔면 침 찍어놓고 옵니다.

내가 침 찍어놓았는데 다른 데로 팔린 역사가 없었습니다. 안 되면 내가 침 뱉어놓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은 그러셨습니다. “야, 그런 것 사면서 메시아가 찌지하게 침 발라 놓고 그렇게 하느냐?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갖고. 그 능력을 그런데 써먹느냐? 말로만 선포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서 안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안 준 것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섭리의 사람에게 대신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었다. 너에게 주어도 똑같고, 그에게 주어도 똑같지 않느냐?”

여러분들도 늘 원했던 것을 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반드시 줍니다. 받습니다. 그때 받아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반드시 줍니다. 자기 소원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에게 오기를 원하느냐? 내가 소원을 이루어주는데,

그 때가 문제이다. 그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나에게서는 제일 걱정거리다. 그것이 문제이지 오는 것은 그 까짓것 아무 것도 아니다. 내가 큰마음 먹고 한다. 늘 와서가 문제이다.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그렇게 합니다.

선생님도 무엇을 달라고 하면 꼭 줍니다. 그런데 받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늘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덜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럽니다.

“저 사람이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뺏아서라도 줍니다. 누가 데리고 살아도 뺏아서 이리로 오게 합니다. 기독교에서 데리고 살든지, 불교가 데리고 살든지 데리고 삽니다. 그 종교를 결혼해서 사는 것으로 봅니다. 불교라는 남자, 기독교라는 남자로 봅니다. 그래도 기어코 데리고 옵니다. 문제는 데려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주기는 주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모든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후에 그것을 잘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가.

사람들은 잘하기는 잘 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잘하지를 못한다.”

“계속 적으로는 못 하더라.”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크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계속적인 관리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건강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원하면 하나님께서 주기는 줍니다. 기도하면 줍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을 열면 물은 나오는 것입니다.

“주기는 준다. 그런데 어떻게 귀하게 쓸 것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오라고 해서 안 오면 다른 사람들 택해서 하나님은 섭리를 꼭 하신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택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본래 택하여 오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본래 원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대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본래 내가 부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지금 열심히 섭리를 뛰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하십시오. 여러분들, 섭리의 모든 사람들이 본래 원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래 원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노회장, 총회장님들, 그리고 내 동네에서 나와 같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오고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러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월명동 석막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본래 내가 원했던 사람은 내가 석막교회 같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제일 처음에 불렀습니다. 그러나 안 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장로도 하고, 이 큰 섭리를 같이 하자.” 그랬더니 ‘이제 가기는 어디를 가느냐? 여기도 똑같은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온 것입니다.

우리 섭리사 전체는 거의 본래 불렀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본래 불렀던 사람입니다. 종자가 다릅니다. 나는 본래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 때 기독교에서 딱 왔습니다. 와서 시대를 배우고 깨닫고 갑니다.

본래 오라고 한 사람들이 아니고 두 번째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감격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잘해야 됩니다.

역사는 지금 지구상에 진행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지구상은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통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가야 됩니다.

하늘 앞에 운을 탔다는 것은 “선생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더 챙긴다. 더 신경 쓴다.” 이게 운을 탄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버뜩 버뜩 하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는 흐리멍덩할 때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든지 싫어할 것입니다.

물건을 하나 택해서 사올 때도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하고서 사오는데, 사람을 택할 때는 좀이나 오랫동안 고르고 또 고르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재 봐라. 내가 택하고 지금도 후회가 없다.” 이럴 정도로 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습니다. 본인한테는 이야기 안 해도 다른 사람에게 “재를 내가 택했는데, 괜히 택했다.” 그런 이야기를 옆의 사람에게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또 옆의 사람이 바보처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그러나 반드시 본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면 다른 사람 택한다는 것을 아주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바꿉니다. 나는 머리라서 안 바꿉니다.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바꿉니다.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꼭 바꾼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꿉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이를 갈며 치를 떠는 날이 있습니다. 못 견딥니다. 섭리사를 나가서 얼마나 울고 짜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선생님께는 들려오고, 편지도 옵니다. 그러나 절대 답을 안 줍니다. 안 주고 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구상에서 최고 지독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나를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사상이 무서운가요. 무서운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을 다 이기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인 조건을 갖고 있어야 사탄도 꿈쩍 못하고 굴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너희도 택했으니까 그 택한 것을 감당하고 잘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었기에 이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실기에 들어가니 앞으로 실기 가운데 열심히 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은 끝까지 다 배우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안 배운 사람은 뿌리가 얇아서 제대로 못 가고 결국 죽는 자가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